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10월

선교편지 제 168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종종 '하나님의 권속'으로 표현하는데, '권속'이라 함은 한 집에서 한 솥 밥을 먹는 식구이며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생활하며 경험하는 가장 큰 즐거움 중의 하나는 가족과 같은 현지 교우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한 몸이 되었음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소속감도 더욱 더 깊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거창한 식단의 식사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는 데로 교회에서 식사를 통한 친교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쌀 밥과 국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 몇 가지 반찬만 준비하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웃음 꽃이 활짝 피는 아주 훌륭한 식사 친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준비에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한 인원을 고려한 정량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10명이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식사량을 고려하여 10인분만 준비하면, 결코 좋은 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도 그릇에 여전히 밥과 반찬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남은 음식을 비닐 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서 잘 먹고 난 이후에, 집에 있는 식구 몫까지 챙겨가는 것이 현지 교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러한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충분히 먹고 남은 음식을 태연하게 집으로 싸 가지고 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교회 재정을 먹고 마시는데 다 소비하는 것 같아서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만 잘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집에 있는 식구들까지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교회 종직자들이나 학생들과 교회 밖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면, 언제나 인원수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분량을 주문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에 집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비닐 봉지에 남은 음식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친교로 기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충분하게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아닌 밖에서 선호하는 외식은 단연코 '맥도날드 (McDonald's)' 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메뉴는 햄버거와 같은 빵 종류가 아니라, 이곳 현지 입맛에 특화된 '2-Pc Chicken McDo' 라는 Set 메뉴입니다. 즉, 쌀 밥과 두 조각의 Fried Chicken, 그리고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원수 대로 주문을 하면, 즐거운 식사가 아닌 매우 이상한 모양의 식사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맥도날드'에 들어왔는데, 정작 주문한 음식을 앞에 놓고는 제대로 먹는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음료수만 조금씩 마실 뿐, 앞에 놓인 밥이나 Fried Chicken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싸가지고 가서, 식구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은 심지어 포장에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집으로 가져 갑니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어, 제 아내는 식사 시간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의 형편과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두들 유쾌한 식사 친교가 되도록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교회 이지만, 아무쪼록 즐겁고 풍성한 식사 친교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역사가 이곳 선교지에도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6-47)**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지난 8월 16일 '마띠' 지역에 새로운 교회 부지를 구매하고, 한달 이상을 교회 건축을 위한 준비로 매우 분주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여간 교회 부지를 찾고, 구매하는 일도 꽤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 지금부터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을 많은 인내를 가지고 처리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이 절차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가장 첫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세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 15 종류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적법한 거래인가와 적정 세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얼마나 방대한지,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를 두꺼운 책처럼 순서대로 '제본'을 해 주는 부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거의 한 달 만에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구입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일반 용도의 토지라는 것을 증빙하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디고스 지역의 많은 지역은 농지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확인한 내용이지만, DAR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부서에서 실제 현장 실사와 변호사를 통하여, 또 다시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제출하고 마침내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마침내 토지의 소유주가 옛 주인으로부터 '마띠 교회'로 변경된 새 Title을 ROD (The Registry of Deeds)로부터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수많은 준비 서류와 몇 번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통과가 되어 10월 11일에 새로운 교회 명의의 Title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각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과연 이러한 요식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행정 절차를 위해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마치 회사의 높은 사람에게 결재를 받는 것처럼, 의뢰자가 직접 서류를 들고, 각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보완한 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토지 구매 이후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거의 마무리 하였고, 이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설계를 의뢰한지 거의 4주가 되어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빠른 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EO (City Engineering Office) 부서에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Fire Department로부터 소방 시설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 회사에 전기 도면을 제출하여 교회 규모에 맞는 적절한 전기 공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수도물 공급 회사로부터 상수도, 하수도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두 교회를 건축하면서 Permit 관련 부서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중순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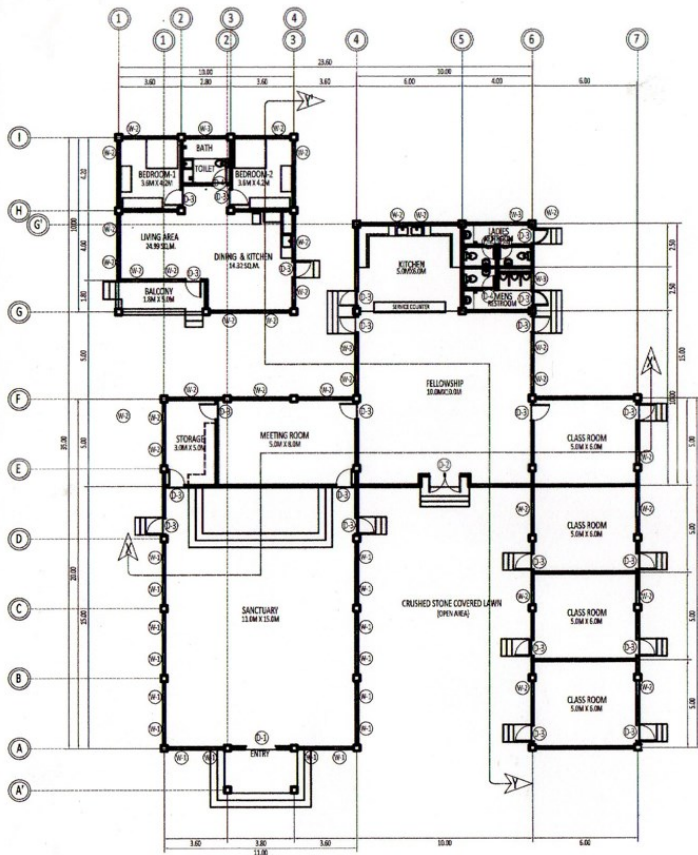
마띠 교회를 건축하기 전,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노방 전도를 시작 하였습니다. 거의 일년 후이나 건축될 교회지만, 각 집을 찾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될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마띠 고등학교 장학 사역에 포함되었던 어린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어 우리를 알아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더 없이 기뻐합니다. 마치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 16:9) 하는 것처럼, 마띠 교회를 고대하는 주민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절차가 끝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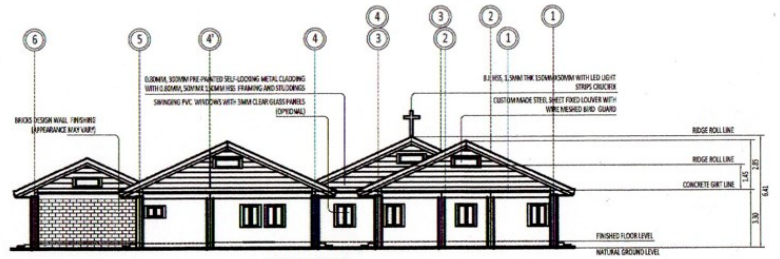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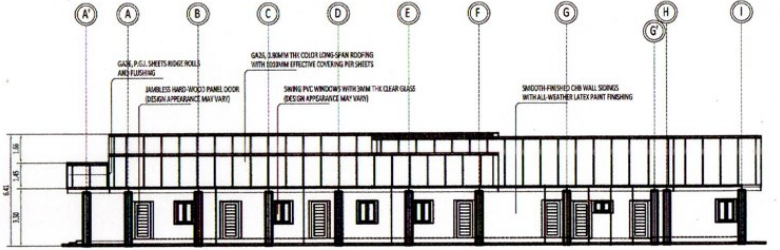
# 마띠 장로 교회 예상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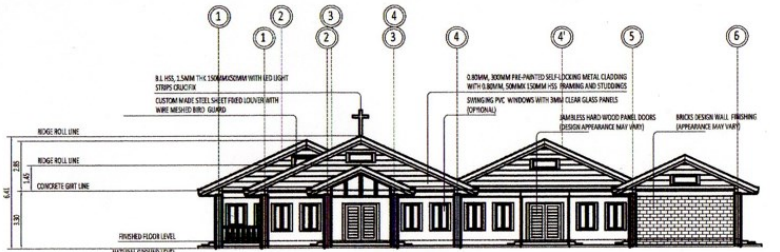
FLOOR PLAN  
SCALE: 1:125 METERS



REAR ELEVATION  
SCALE: 1:125 METERS



RIGHTSIDE ELEVATION  
SCALE: 1:125 METERS



FRONT ELEVATION  
SCALE: 1:125 METERS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